

# 6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해**마다 4월부터 8월까지의 돈가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다가 9월 이후, 즉 추석이 지나면서 대체로 돈가가 낮게 유지된다. 이러한 원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년 여름철 교배시킨 모돈의 수태율이 낮고 또한 산자수도 낮은 것이 주원인이다. 물론 여름철에 교배시킨 모돈이 임신에 실패한 후 일시에 가을철에 많은 복이 교배가 들어가고 이러한 모돈이 분만하는 겨울철에 설사병으로 많은 자돈을 잃게되는 것도 계절별 돈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흐름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그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양돈장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름철을 맞는 양돈장의 각오는 예년과 달라야 한다. 당장 올 가을부터 겨울철 불황이 오지 말란 법이 없으며 이렇게 진행이 될 때 내년 1년을 좀더 수월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철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돈콜레라 근절이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대일 돈육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다가오는 새 천년은 우리 양돈인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시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번 여름철을 농장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내 농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승부를 걸어야 할 중요한 시기로 인식을 하고 그 어느때 보다 최선을 다해 관리에 임해보자.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이번 호에서는 여름철에 주로 문제되는 번식부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한다.

## 1. 과비 모돈은 여름철에 특히 약하다.

과비 모돈은 과비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하에서 과비 모돈은 두터운 지방층에 의해 체열 발산이 어려워지고 또한 무거운 체중 유지를 위해 열생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더욱 견디기 힘들게 된다.

### 1) 과비 모돈의 발생 원인

- 선천적 요인 (체질적으로 지방질이 많은 개체)
  - 장기 불임돈, 또는 장기 적체돈
  - 연속 사고돈 (재발, 불임, 유산 등)
  - 산자수가 적거나 또는 이유두수가 낮은 농장의 경우 많이 발생
  - 모돈을 군사하는 경우 또는 스톨에서도 난폭한 모돈은 주변 사료를 독식하게 됨
  - 질병 또는 기타 원인으로 조기 이유한 모돈.
  - 비유능력이 떨어지는 모돈(특히 노산돈이 많은 경우 이에 해당됨)
  - 4주령 이유하던 농장에서 3주령 이유로 이유일령을 변경할때 가끔 발생
- ⇒모돈 사료급이량 및 임신 말기 모돈 바디컨디션을 3주령 이유에 맞게 변경해

야 함.

- 사료조절의 실패, 즉 앞서 나열한 2차적 요인이 있지만 결국 과비의 근본 원인은 바로 모돈 개체별 사료 조절의 실패라고 요약할 수 있다.

## 2) 모돈의 과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포인트

과비 모돈은 자신의 무거운 몸을 유지하기도 힘이 들므로 번식 성적이 대체로 떨어진다. 또한 이로 인해서 농장 전체 사료 요구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비 모돈의 방지는 모돈의 바디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사항이다.

- 모돈의 산차별 그리고 각 단계별 정상 바디 컨디션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비 모돈이 많은 농장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모돈의 바디 컨디션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다)

- 모돈의 각 단계별로 체형에 맞게 사료조절을 한다.

: 임신돈은 주 1회 이상 체형 및 임신 일령에 따라서 사료량 조절. (포유모돈의 경우 포유자돈의 수를 감안하여 사료량을 조절을 해준다)

--> 이용하는 사료의 에너지가에 맞게 급여량을 조절한다. (사료회사에 상담이 필요)

- 문제 모돈 및 노산돈의 계획적인 도태

- 분만을 및 산자수를 높이기 위해 교배관리를 철저히 한다.

- 이유일령에 따른 모돈 바디컨디션 관리가 필요함. (이유일령이 3주령 이내일 때는 4주령 이후 보다 전체적으로 모돈의 상태가 약간 다른 듯한 것이 좋다.)

이밖에도 세세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돈의 최적 바디컨디션 유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오기 전에 살찐 모돈이 있다면 미리 다이어트를 시키도록 하자.

## 2. 여름철 교배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자.

여름철에는 임신율이 낮고 또한 모돈의 번식 기능이 저하한다. 이러한 자연적인 생리현상을 최대한 극복하여 높은 번식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여름철 관리의 핵심 포인트일 것이다.

### 1) 웅돈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자.

웅돈도 모돈과 마찬가지로 고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번식기능이 저하한다. 보통 웅돈이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약 45일 후에 사정되는 정액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6~7월에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웅돈은 8월경부터 정액의 질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전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웅돈관리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보유하고 있는 전체 웅돈에 대한 정액검사를 미리 실시한 후 정액 질이 불량한 웅돈 및 노령 웅돈을 도태시킨다.

- 웅돈의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을 취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 웅돈방 수세, 소독 그리고 포피세척 및 소독과 같은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 고온으로 인한 승가육 저하 방지를 위해 교배는 가급적 시원한 시간대에 맞추어 실시한다.

### 2) 인공수정용 정액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자.

- 정액 보관은 전용 보관고에 한다.

- 보관고내에 최고최저 온도계를 비치하여 수시로 온도를 점검한다.

- 정액 이동시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교배 복수가 많을 때는 정액의 온도 유지에

유의한다.

### 3) 여름철교배도 수태율과 산자수를 높일 수 있다.

- 수태율과 산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돈의 산차 구성이 잘 맞아 있어야 한다.

- 생식기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철저히 한다(특히 자궁내막염 및 질염).

- 일본뇌염 백신 및 파보백신을 철저히 접종한다(특히 후보돈에 교배 들어가기 2주전까지는 1,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유후 재귀일수를 7일 이내로 (가급적 5일이 좋다) 유지하도록 관리해 준다.

--> 이를 위해서는 모돈의 영양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포유기) 따라서 충분한 사료를 섭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돈사료에 영양제를 추가로 첨가하여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강해준다(하절기 모돈 식욕 부진예방 대책 참고).

또한 이유후 웅돈접촉을 빈번히 해주어 발정유도를 위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

- 초산돈의 경우 분만틀에서 과도한 체력소모가 우려되므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 교배전 강정급이를 철저히 시행한다. 특히 후보돈의 경우 미리 현황판 설치를 하여 초교배 예정일 10일 전부터 강정 급이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임신초기에 고온환경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수정란의 생존율이 낮아지므로 이는 곧 산자수의 감소로 연결된다. 임신 초기 모돈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3. 모돈의 식욕부진을 예방하자.

모돈의 식욕부진 현상은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 고온환경 하에서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 1) 일반적인 모돈 식욕부진의 원인

- 외상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한 통증, 또는 무기력.

- 충분한 음수섭취를 못할 경우.

- 주변 환경온도가 높은 경우 (25도 이상이면 사료섭취량 감소가 나타남)

- 분만후 식욕부진의 원인중 임신말기에 과도한 사료급여가 문제되기도 한다.

### 2) 하절기 모돈 식욕부진 예방 대책

- 고온에 의한 문제이므로 환경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체감온도를 낮추는 냉방시설을 강화해 준다.

- 신선한 음수를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특히 분만을 전후해서 그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이유시까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 임신돈의 바디컨디션 유지를 위한 관리를 체계화 한다. 즉 모돈의 건비상태에 따라 사료급이량 조절을 전체 모돈에 주 1회 실시한다. 이때 분만 1주전까지는 최적의 바디컨디션을 맞춰 주어야 한다. 분만 1주전 부터는 사료량을 서서히 줄여 나가며 분만 당일엔 절식을 시켜도 무방하다.

- 포유돈의 경우 분만직후부터 사료량을 급격히 늘리지 말고 서서히 늘려나가 분만후 7일령에 4~5kg을 하루에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준다.

- 분만시간 지연, 난산 등과 같은 분만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유도분만제의 사용비율을 높인다.

- 무유증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유증 항목 참고)

### 4. 발정지연돈 및 문제모돈에 대한 신속한 대책으로 모돈회전율을 높이자.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게 되면 이유모돈

및 후보돈들의 발정이 미약하고 불규칙해진다. 이때 이러한 문제돈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휴양돈의 증가로 인한 관리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비생산일수가 늘어난다.

또한 임신진단 및 전산관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공태돈 및 능력저하 모돈을 신속히 찾아내고 조치하여 모돈 회전율을 높인다.

## 5. 여름철 모돈의 비뇨생식기 질환을 예방하자.

무유증, 자궁내막염, 방광염과 같은 질환은 여름철에 더욱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지 않고는 여름철 번식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없다.

### 1) 모돈의 분만후 저유증후군 (무유증)

대개 분만 후 3일 이내에서 발생한다. 고온환경 하에서는 모돈의 체력이 저하되고 내분비 기능에 장애가 생겨 분만사고가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농균의 증식이 활발하여 자궁내막염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관계로 분만 전후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주원인

- 분만전후의 스트레스
- 임신말기 고영양사료의 과급 또는 임신기 모돈 사료급여량 조절 실패
- 음수량 부족
- 분만틀 위생관리의 부실
- 유방염 및 자궁내막염

#### 증상

- 모돈 : 침울, 식욕부진, 수유거부, 발열(열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변비, 유방부종, 유방의 상처 등

- 자돈 : 신생자돈 설사, 심한 포유투쟁(특히 3일령 이내에서), 자돈의 얼굴 및 다리에 상처, 활력저하, 젖빠는 횟수 감소, 허약자돈 다발, 압사 등

#### 예방대책

- 모돈사료 급여량 준수 및 분만사 위생관리 강화
- 분변에 의한 유방 감염을 최소화한다
- 분만유도제의 활용
- 8산 이상의 노산돈 계획 도태

### 2) 자궁내막염

#### 증상

- 주로 교배 후 15 ~ 22일 사이에 크림상의 분비물을 다량 배출한다(재발주기와 관련됨).
- 분만 후 2~3일간 질 외부로 농이 배출된다.

#### 원인

- 비뇨기계의 질환이 있을 때 (모돈의 음수섭취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때)
- 분만시 또는 교배시 산도의 상처로 인한 염증
- 무리한 조산 및 비위생적인 교배
- 병원균에 심하게 오염된 불결한 돈사
- 웅돈의 위생관리 부실
- 노산돈이 많을 경우

#### 예방대책

- 노산돈 및 문제돈의 갱신
- 웅돈의 포피 소독 및 웅돈방의 정기적인 소독
- 임신사의 청소, 소독 강화
- 위생적인 교배 (교배전 음부 세척 및 일회용 장갑 착용 등)

- 모돈에 충분한 음수 공급을 위한 급수기 점검
- 모돈 및 웅돈에 광범위 항생제 클리닝 실시
- 분만 후 질 및 자궁세척, 항생제 자궁내 주입

입양